

## 2026년도 제35회 대비 공인노무사 GS-2기 8회차 채점평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출제자 / 채점자
3교시	인사노무관리론	50분	공인노무사 김유미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25점)**

물음 1) Dunlop이 제시한 노사관계 시스템(Industrial Relations System)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0점)

물음 2) 노사협회의 개념과 구성 및 운영사항을 기술하고, 노사협회와 단체교섭의 차이점을 비교하십시오. (15점)

**✓ 점수 구분**

- 15점 이상 : 합격점 이상 ( 기본 내용 이해 + 성실한 암기 + 서술 형식 )
- 12점~14점 : 보충 필요 ( 각 답안지에 comment 참조 ) - 형식 부족 or 내용 부족
- 11점 이하 : 기본 내용 숙지 부족 ( 각 답안지에 comment 참조 )

**✓ YM 연구소 첨삭 시스템 안내**

- 1차 첨삭자(약 90명) : 첨삭 + 1차 가채점 + 채점평
- 2차 첨삭(김유미 노무사) : 재채점(빨강색 굵은 글씨) + 도장

**< 전반적으로 잘 쓴 부분(타 답안들도 이 정도는 쓴다는 지표) >**

- 노사관계의 본질, 산업민주주의, 경영참가 등의 상위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준 답안이 많았습니다.
- 단련의 3대 구성요소(노·사·정 주체, 환경, 이데올로기)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각 요소의 세부 내용과 ‘규칙의 망’ 을 디테일하게 현출한 답안이 좋았습니다.
- 단련의 IRS 모형과 노사협회를 <규칙 제정 메커니즘>으로 매끄럽게 연결하거나, 결론에서 노사협회와 단체교섭의 실무적 혼동 가능성을 날카롭게 시사하며 마무리한 답안이 좋았습니다.

**<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여기서 차별화가 되었다는 지표) >**

- <단련 구성요소의 단순 암기식 나열 및 키워드 누락> 측면에서 모형의 개념과 도식은 그렸으나, 노·사·정 3주역의 정확한 키워드나 ‘공통의 이데올로기’ 와 ‘General rule / Specific rule’ 의 서술을 빠뜨린 답안이 많았습니다.
- <노사협회 운영사항의 동어반복 및 하위 서술 혼동> 측면에서 보고·협의·의결 사항을 작성할 때 법적 용어의 단순 동어반복에 그치거나, 각각의 사항에 들어갈 하위 세부 내용 (예시)들을 서로 섞어서 잘못된 기재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 <문항(1-1문과 1-2문) 간 브릿지(연결 목차)> 측면에서 단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과 노사협의회 문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문장이나 소목차 없이 완전 배타적인 주제로 끊어지는 느낌을 주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 <노사협의회 운영사항의 구조화 및 입체적 서술> 측면에서 보고·협의·의결 사항(보/협/의)을 서술할 때 단순 줄글이 아닌 개별 목차로 쪼개어 [의의 → 목적 → 구체적 법정 예시]의 세트로 입체감 있게 구조화한 답안이 좋았습니다.
- <비교 대상(단체교섭)의 개념 사전 정의> 측면에서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 ‘단체교섭의 개념’ 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음을 증명한 답안이 좋았습니다.
  - ▶ 단체교섭이란 용어는 영국의 B. Porter가 사용한 용어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협상하는 과정
- <비교 문제의 목차 설계 미흡> 측면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회의 차이점을 쓸 때 직관적인 비교 기준(목적, 당사자, 합의의 효력, 쟁의행위 가능성, 노사관계 등)을 대칭적인 목차로 구획하지 않아 비교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문제 2] 최근 많은 기업들이 BPR을 시행하며 스마트 워크를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도입·정착시키고 있다. 스마트 워크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제시하고, 스마트 워크의 장점을 기업·종업원·국가의 입장에서 설명한 후, 스마트 워크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25점)**

✓ **점수 구분**

- 15점 이상 : 합격점 이상 ( 기본 내용 이해 + 성실한 암기 + 서술 형식 )
- 12점~14점 : 보충 필요 ( 각 답안지에 comment 참조 ) - 형식 부족 or 내용 부족
- 11점 이하 : 기본 내용 숙지 부족 ( 각 답안지에 comment 참조 )

< 전반적으로 잘 쓴 부분(타 답안들도 이 정도는 쓴다는 지표) >

- 스마트워크의 유형 서술 시 <장소>와 <시간>이라는 2가지 기준을 세워 분류 구조를 짜고, 기본 유형을 넘어 ‘하이브리드 워크’, ‘워케이션’, ‘상시/수시형’ 등 풍성하게 녹여낸 답안이 많았습니다.
- 각 스마트워크 유형의 단순 개념 정의를 넘어, 유형별 특징과 구체적인 장단점, 실무적 예시까지 균형 있게 연결하여 답안의 분량과 내실을 모두 채운 답안이 좋았습니다.

<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여기서 차별화가 되었다는 지표) >

- <명시적 요구 조건(BPR 개념)의 누락> 측면에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BPR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답안지가 BPR의 정의나 개념 핵심을 서술하지 않고 스마트워크만 서술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 <스마트워크 장단점의 단순 결론 암기 및 논거 부족> 측면에서 스마트워크의 장점을 쓸 때 “왜 그런 장점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경영학적 인과관계(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달달 외운 결론 단어만 툭 던진 답안이 많았습니다(예 : 비용이 절감된다. 텔레코즘의 법칙).

▶ 텔레코즘의 법칙이란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지리적 거리는 줄어든다는 의미로,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원격근무,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이 활성화되어 우수인재 확보 범위가 확대되고, 출퇴근 비용 및 사무공간 비용이 절감된다.

-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미비> 측면에서 사적 영역 침해, 조직 내 소외 등 스마트워크의 문제점(유의사항)은 적절히 짚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솔루션(예 : 가상 접촉 채널 활성화, 스스로 루틴 정하기 등)을 제시하지 못해 당위성에 그친 답안이 많았습니다.

- <유기적 흐름 부재> 측면에서 본문 내용 쓰기에만 급급하여 대두 배경이나 종합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는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답안의 짜임새와 인상을 완성하지 못한 답안이 아쉬웠습니다.

- 운영상 유의사항을 나열할 때 [기업 측면 / 종업원 측면 / 국가·사회 측면]의 3분 프레임으로 다차원화하여 논리적 격을 높인 답안도 좋았고, 경영학적 격언 및 거시 이론의 창의적 인용 (“Management = System + Spirit”, 서로 떨어져있어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일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가 유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체계성과 깊이를 보여준 답안이 좋았습니다.